

대선 D-6 광주·전남 막판 표심잡기



대통합민주신당 신중식 전남선거대책위원장이 12일 당 소속 전남도의원들과 함께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동영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호남미래 만인연대’는 12일 광주시민회관에서 김덕룡 의원 등 한나라당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본부 창립대회를 갖고 지역주의 청산과 국민통합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거짓과 진실 대결” “경제 살릴 후보를”

대선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12일 대통합민주신당은 “부패 수구세력에 다시 정권을 내줄 수는 없다”며 뒷받침 광주·전남 유권자들의 결집을 호소했고, 한나라당은 광주여성계 인사들의 이명박 후보 지지선언을 이끌어내며 세몰이를 가속화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개시 후 세 번째로 광주·전남을 찾아 종반 표심잡기에 나섰다.

“수구세력에 정권 내 줄 수 없다”

○대통합민주신당 신중식 전남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김중철 전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신당 소속 전남도의원들과 함께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대선은 거짓과 진실의 대결이며, 과거 회귀세력인 수구부패동맹과 미래세력인 민주평화세력의 전면전”이라며 “거짓말쟁이가 득세하는 세상이나, 아니면 상식과 정의가 통하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선진사회나, 이 중 하나를 오는 19일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비리와 거짓말이 명백한데도 검찰은 이 후보의 높은 지지를 이 두려워 그의 손을 들어줬다”며 “거짓으로 국민을 잠시 속일 수는 있지만 영원히 속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동영 후보는 낡은 경제의 틀을 넘어 새로운 성장을 만들어 낼 것이며 특권의 장벽을 넘어 중산층과 서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소수자를 포용하는 따뜻한 통합의 사회를 건설할 것”이라며 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정 후보는 13일 광주·전남을 다시 방문, 여수~순천~목포~광주 등 동서를 오가는 크로스 유세 투어를 통해 역전 승부수 띄우기에 나선다.

광주 여성지도자 120명 지지 선언

○한나라당 광주시당 회의실에서는 김형자 한국여성사회 광주지부장과 김남자 이화여대 재광동창회장 등 광주지역 여성지도자 120명이 이명박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지지선언문을 통해 “광주·전남에서 특정 정당이 집권해온지 10년이 됐지만 지역경제는 오히려 더 낙후됐다”며 “중도 퇴직과 젊은이들의 취업난으로 붕괴되는 가정, 육아비가 모자라 자녀조차 갖지 않는 젊은 부부들을 구해낼 수 있는 사람은 이명박 후보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회복 의지가 강한 이 후보야말로 여성을 위한 참실천

지도자임을 확인하여 전폭 지지해 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이상득 국회의장의 부인 최신자씨가 함께 해 눈길을 끌었다. 김덕룡 의원은 이날 함평과 장성지역 5일시장을 돌며 이명박 후보 지원유세를 펼쳤으며, 광주시당은 광주공원과 광주역 등지에서 거리유세를 계속했다. 김 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호남미래 만인연대’는 이날 오후 광주시민회관에서 광주·전남본부 창립대회를 갖고 오병문 전 교육부장관과 정시제 전 농림부장관, 김동환 전 광주시장을 고문으로, 광주본부장에는 안기영 목사, 전남본부장에는 이충경 보은병원장과 문일섭 전 국방부 차관을 위촉했다.

여수·순천 시장 돌며 지지 호소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부재자 투표를 하루 앞둔 이날 여수 낙포부두와 순천 아랫시장, 광주 말바우시장을 돌며 부동층 표심잡기에 주력했다. 민노당 광주선대위는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노동자를 비롯 각 부문별 지지선언을 이끌어내고 상가방문 등을 통한 밀착형 선거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12년전 ‘검은 악몽’ 그대로”

여수시민 80여명 태안 찾아 보은의 복구 활동

“온 바다를 뒤덮은 기름덩어리를 쳐다보니 12년 전 씨프린스호 사고 때의 악몽이 떠오릅니다.”

1995년 여수 ‘씨프린스호 사고’로 같은 아픔을 겪었을 때 지원의 손길을 받아 힘을 얻었던 여수시민들이 12일 사상 최악의 원유 유출사고로 큰 피해가 발생한 충남 태안을 찾아 ‘보은의 복구활동’을 펼쳤다.

6시간 동안 버스를 탄 끝에 이날 오전 10시께 태안군 소원면 만리포 해수욕장에 도착한 여수시와 여수수협 관계자, 어민 등 80여명은 눈 앞에 펼쳐진 검은 백사장장을 보자 참담한 표정이었다.

여수수협 최영창(68) 조합장은 “12년 전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검은 바다를 보며 어민들이 느꼈을 고통이 그대로 전해져온다”고 말했다.

착잡한 표정으로 바다를 바라본 이들은 그러나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듯 곧 방제복을 챙겨 입고 장화를 신었다.

최 조합장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여수에서는 꽃게와 조개가 잡히지 않는다”며 “이는 국가적 재난 인만큼 정부가 나서 어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을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수시민들은 씨프린스호 사고 때 전국 각지에서 지원의 손길을 보내 자신들을 도왔던 경험을 기억하며 한 시도 설 틈없이 복구작업에 열성이었다.



지난 1995년 ‘씨프린스호’ 기름 유출사고를 겪었던 여수시민들이 12일 오전 함양면에서 한창인 태안 만리포를 찾아 흠착포를 이용, 모래에 달라붙은 기름띠를 제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양시 봉사단도 기름제거 작업

보성군 1천만원 어치 녹차 전달

당시 전문적인 방제선도, 체계적인 인력도 없었기 때문에 생גע도 포기한 채 배를 몰고 직접 바다로 나가 밀려오는 기름과의 고독한 싸움을 벌여야했던 여수지역 어민들은 구원의 손길을 보낸 기업체와 타지역 주민들의 응정을 되새겼다.

여수 어민 김중근(65)씨는 “그나마 여기는 모래라 퍼담기만 하면 되지만 그때는 바위라 전부 다 일일이 손으로 닦아내는 수밖에 없었다”며 “그때의 여수 바다는 말 그대로 지옥이었다”고 전했다.

박영수(54)씨도 “마땅한 도구들도 없었고 어민들이 저마다 자기 배를 갖고 나가 직접 바위에 붙은 검은 기름띠를 닦아냈다”고 탄식을 내뿜었다.

한편 광양시 자원봉사단 40명은 이날 피해가 가장 심한 태안군 신두리 해수욕장에서 기름제거 작업을 벌였다. 또 보성군은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사고로 어려움을 처해 있는 태안군을 방문, 1천만 원 상당의 녹차 음료를 전달하고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로했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민주당 몰락하나

최인기 의원 성명서 이상열 의원 국회서 단식 단일화 외면 범여 대선 패배엔 책임론 불가피

민주당이 대통합민주신당과의 통합 및 대선 후보 단일화를 외면한 데 이어 12일 정동영 후보의 공동정부 구성 제안마저 거부하고 대선까지의 독자 완주의사를 확고히 했다.

그러나 이인제 후보로는 정권 창출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의 전반적인 예측이어서 대선 이후 민주당의 진로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현 상황에서는 사실상 범여권 진영의 대선 승리가 어려운 만큼 대선 이후 정국 진행 상황을 보면서 활로를 모색한다는 방침을 내

놓고 있다. 그러나 대선 이후의 정국이 민주당의 기대대로 움직일지는 미지수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막판까지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고 한나라당의 집권이 현실화된다면 민주당은 내부적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최인기 원내대표는 12일 정동영 후보와의 단일화와 신당과의 통합을 거부한 지도부를 비판하며 다시 한번 대선 막판 단일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기에, 이상열 정적위의

장도 정동영-이인제 후보의 단일화를 주장하며 국회 분관 1층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막판까지 정동영-이인제 후보의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선 이후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최대의 위기 국면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외부적 환경도 우호적이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정동영-이인제 후보의 단일화를 거부한 박상천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도 범여권 진영의 대선 패배 책임론이 비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임동욱기자 tuim@

전남도청 직원 100여명도 현장 달려가

광주시 봉사단 600명 파견키로

사상 최악의 원유 유출사고로 신음하고 있는 충남 태안해역의 오염방제를 위해 전남도청 직원들이 구슬땀을 흘렸다.

박준영 전남지사와 도청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관실·해양수산환경국 직원 100여 명은 12일 유출된 원유로 오염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충남 태안지역을 방문해 복구 활동을 벌였다.

박 지사와 직원 등은 이날 오전 흠착포와 리본, 생수 등 1천220만 원 상당의 지원 물품을 전달하고 태

안 신두리 해수욕장 일원에서 직접 피해복구 활동을 펼쳤다. 직원들은 흠착포를 사용해 기름띠를 제거했으며 실외에 빠진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로했다.

특히 박 지사와 전남도청 직원 등은 이날 여수박람회 주제인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되새기며 해양자원 보전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일깨웠다.

이와 함께 광주시도 시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600명으로 ‘태안반도 피해방제 자원봉사단’을 구성해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태안 신두리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기름제거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A large advertisement for 'Chungcheong' (충청) featuring various products, prices, and promotional offers. It includes a list of items like 'Chungcheong' (충청), 'Chungcheong' (충청), and 'Chungcheong' (충청) with prices ranging from 1,000 to 10,000. There are also images of buildings and people.